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0

“우리도 함께 뛴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U대회·핸드볼 선수권 등 유치

‘스포츠 광주’ 세계로의 질주

광주시체육회

“올해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오는 2015년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향한 힘찬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 하계U대회 유치 성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광주시체육회(사무처장 전학철·이하 시체육회)가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세계로 질주하는 스포츠 광주’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것을 다짐했다.

시체육회는 하계U대회 유치 성공의 여세를 몰아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오는 8월) 광주 개최라는 또 하나의 성과도 올렸다. 이 대회를 통해 경기장 시설 점검과 대회 운영 경험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태세이다.

체육 꿈나무 조기발굴 주력

이렇듯 밖으로 광주체육 위상제고에 힘써 온 시체육회는 안으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첫째 체육 꿈나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중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해 인적·물적지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고교·대학·일반부까지 연계 육성, 우수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광주체육 전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수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각종 전국대회를 비롯한 2015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에서도 고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량을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체육 발전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 놓은 시체육회가 이번 3·1절 마라톤에서 전원 완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평소 생활체육 정구로 건강을 다져온 김용기 상임부회장은 지금도 고교선수들의 연습상대가 될 정도의 체력과 기량을 갖추고 있어 5km 완주를 자신하고 있다.

시체육 발전을 위해 1년 365일 쉬지않고 뛰어다니는 ‘철인’ 전학철 사무처장은 타고난 체력과 특유의 뚝심으로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평일엔 체육현장을 다니고,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2015년 하계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올해를 글로벌 스포츠도시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용기 부회장 등 30명 5㎞ 완주

휴일엔 등산으로 단련된 전 처장은 이번 대회에서도 선두에서 직원들의 완주를 이끌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육상 선수 출신 박재현 운영부장과 안재오 계장은 이번 대회 ‘다크호스’. 박 부장과 안 계장은 평소 월드컵경기장에서 조깅으로 현역시절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해 오고 있어 벌써부터 주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부홍 총무팀장은 평소 염주시설팀 임유승계장, 고익상계장, 강광호주임과 배드민턴을 치면서 체력과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경기팀 홍일점인 홍은주계장은 현재 화정초 야구선수인 아들과 함께 조깅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아들의 공도 받아주는 등 남자 못지 않는 야구실력(?)을 가지고 있다.

광주체육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체육회의 힘찬 출발을 기대해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올핸 나지완-이종환 ‘쌍포’ 뜬다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기자

단국대 선후배 사이…호랑이 ‘거포 계보’ 이을 듯

연습경기 파워히트… 코칭스태프 “즉시 전력감”

〈나지완〉

〈이종환〉

KIA 타이거즈가 ‘CK포’에 이은 나지완-이종환의 쌍포체제로 2010시즌 홈런군단에 도전한다.

2008년 홈런 최하위팀 KIA는 지난해 69개의 홈런을 합작한 좌타자 최희섭과 우타자 김상현의 ‘CK’포를 앞세워 우승행진을 했다. 올해는 우타자 나지완과 좌타자 이종환으로 이어지는 핵타선이 기다리고 있다.

나지완은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결정적인 홈런 두 방으로 KIA의 극적인 우승을 확정지은 검증받은 거포. 나지완의 단국대 1년 후배인 이종환은 KIA 팬들에게도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지난 시즌 신고선수로 KIA에 둥지를 튼 이종환은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 시즌 정식선수로 이름을 올린 무명선수다. 하지만 이종환은 생애 첫 전지훈련에서 거침없는 타격으로 눈길을 끌며 지난해 김상현에 이어 또 따른 ‘깜짝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단국대 재학시절 이종환은 나지완과 3, 4번을 책임지며 타격 하나로 아마야구계를 평정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지명타자로 활동했던 이종환은 수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프로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신고선수로 마지막 기회를 얻은 이종환은 지난해 2군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등 타격본능을 과시하며 정식선수로 승격됐다.

미야자키 캠프에서도 이종환의 타격본능은 여전하다. 안정된 타격자세와 뛰어난 컨택 능력 그리고 파워로 코칭스태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타격 인스트럭터로 참여한 마츠바라 코치는 이종환을 가장 인상적인 타자로 꼽으며 그 가능성과 자질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CK포의 주역 황병일 수석코치도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수비가 좋지 않지만 그 단점을 만회할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뛰어나다는 게 황 코치의 설명이다.

조범현 감독은 ‘재미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말로 이번 캠프의 다크호스를 주목하고 있다.

나지완은 후배 이종환의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다. 선배 체면도 잊고 장난도 치고, 파이팅을 외쳐주며 후배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외야와 1루를 오가며 수비연습에 주력하고 있는 이종환은 7일 첫 연습경기에서 백팀의 3번 타자로 나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변화구 대처능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팀 3번 나지완은 첫 타석에서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올 시즌 목표로 내세운 30홈런 고지를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나지완-이종환의 ‘쌍포’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홈런군단 KIA의 타이틀도 무난할 전망이다.

김상현이 무릎이 좋지 않아 훈련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앞선 훈련에서 변함없는 힘을 보여줬다.

최희섭도 8일 프리배팅에서 오쿠라가하마 구장 우측 상단 그물막을 넘어가는 대형 홈런을 쏘아올리며 선수단을 경악케 했다.

주차장이 인접한 우측펜스는 그물막이 높게 쳐있다. 그물막을 넘기려면 비거리가 150m는 되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외야펜스 밖 변압기에 맞았다, 경기장 맞은편 실내연습장 지붕에 공이 맞았다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희섭의 건재를 과시한 초대형 홈런이었다. / wool@kwangju.co.kr

호랑이 마운드 외도?

연습장서 야구공대신 축구공

골반강화 훈련 족구게임 인기

KIA 타이거즈가 이색 훈련으로 ‘마운드 왕국’ 구축에 나서고 있다.

KIA의 전지훈련지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 구장 실내 연습장에서는 종종 투수들이 삼삼오오 모여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 목격된다.

발로 공을 주고 받는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게 훈련 시간 몰래 한눈을 팔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투수들의 ‘공놀이’도 쉴새 없이 돌아가는 캠프의 훈련 일정 중 하나다.

하체의 유연성이 중요한 투수들을 위한 ‘골반 운동’의 일종이다. 제기를 차듯 공을 주고받으면 저절로 골반 운동이 된다는 게 트레이너의 설명이다. 골반 운동도 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훈련이다.

투수들이라고 해서 훈련 시간 동안 공만 던지는 것은 아니다. 투수들도 배트를 잡고 티배팅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티배팅은 하체를 활용해 공에 더 힘을 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체 강화 훈련의 한 부분이다. 덕분에 KIA 투수들은 종종 타자로 변신한다.

일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에이스 윤석민도 8일 투수 전태현과 호흡을 맞춰 티배팅을 했다. 좌·우타석에 번갈아 선 윤석민은 투구능력 못지 않은 타격감으로 에이스의 위용을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억대연봉 선수 110명… 전체 23%

KIA 평균연봉 8,936만원

올해 프로야구 각 구단에서 억대 연봉에 계약한 선수가 총 1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8개 구단 소속 선수에 관한 자료를 일괄 발표했다.

올해 각 구단에 등록된 선수는 신인 62명, 외국인 선수 16명을 합쳐 총 474명으로 이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는 전체 23%인 110명으로 조사됐다.

두산의 ‘두목곰’ 김동주(34)가 7억원을 받아 2년 연속 최고 연봉 선수를 달렸다.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한 396명의 평균 연봉은 8천687만원으로 지난해(8천417만원)보다 3.2% 올랐다.

지난해 홈런, 타점, 장타율 3관왕을 차지하고 최우수선수까지 거머쥔 김상현(30·KIA)은 연봉이 5천200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뛰어올라 최고인상률(361.5%)을 기록했다. 같은 팀의 최희섭(31)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 배 뛰어 올 시즌 최고 인상 금액을 기록한 선수로 남았다.

구단별 평균연봉은 SK가 1억1천422만원으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선두를 달린 삼성(1억214만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삼성은 LG(1억325만원)보다도 낮은 3위로 내려앉았다. KIA는 지난해 보다 15.2% 오른 8천936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예쁘고 깔끔” “독창성 없네”

새 유니폼 접한 선수들 반응 제각각

빨간색에 T자 로고 모자 “세련됐다”

일본 캠프에 KIA 타이거즈의 새 유니폼이 도착했다.

KIA는 7일 마케팅팀 직원을 일본으로 파견해 선수단에게 새 유니폼을 지급했다.

전지훈련 출발 이후 새 유니폼이 완성되면서 전지훈련 선수단은 처음으로 새 유니폼을 접했다. 선수단 반응은 팬들과 마찬가지로 분분하다.

‘빨간색이 예쁘게 나왔다’, ‘옷이 깔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선수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독창성이 떨어진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낸 선수도 있었다.

새로운 모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챙 부분에 검은 색 디자인이 들어간 기존의 모자에 비해 빨간색 바탕에 ‘T’로고만 들어가면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됐다는 평가다.

새 유니폼을 입은 선수단의 모습은 며칠 뒤에나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수단은 당초 8일 새 유니폼을 입고 훈련을 할 예정이었지만 사이즈 조절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어 착용이 며칠 연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